

스물 여덟과 스물 여섯의 두 남녀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 속에 교회에서 조출한 출발을 한지 2년이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들이 살던 집에 그만 불이 났고 그 불로 아내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늘 아내의 곁에 있으면서 아내를 그 불 속에서 구해 내지 못하고 눈을 잃게 만든 것에 늘 미안해 했습니다.

세월도 짧이 이젠 둘은 저녁 노을에 한 풍경이 되어도 편안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들에게 하나 둘씩 주름을 남겨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웬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군요.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의 그 맑은 미소를...”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이제 그들에게 그만 돌아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먼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많이 슬퍼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각막을 아내에게 남겨 주고 떠났습니다. 비록 자신의 눈도 이제는 너무나 희미하게 보이지만 아내에게 희미한 세상의 모습이라도 마지막으로 보여 주고 싶었던 거지요.

남편은 먼저 하늘로 돌아갔고 아내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남편의 각막을 이식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는 늘 곁에 있던 남편의 그림자조차 없지만 남편의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당신은 내게 말하고 있었지. 당신이 본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하지만 그걸 아요?

우리는 너무나 늙어 버렸다는 것을, 또한 난 당신에게 더 이상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없다고요. 당신은 눈을 잃었지만 그 때 난 나의 얼굴을 잃었다고요.

미소조차 지을 수 없게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해 버린 나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았소.

난 당신이 나의 그 지난 시절 내 미소를 기억하고 있기를 바랬소. 지금의 나의 흉한 모습보다는... 그러나 이제 나는 떠나오.

비록 당신에게 나의 미소는 보여 주지 못하지만 늘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 가기 바라오”

아내는 하얗게 변해 버린 세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알아요. 당신의 얼굴이 화상에 흉측하게 변해 버렸다는 것을 ...

잠을 자는 당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알았지요. 하지만 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 당신의 마음 이해하니까 말이에요...”

참 좋군요. 당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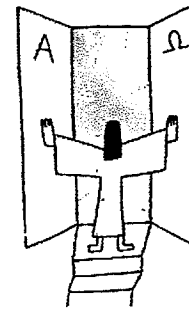


◀학창시절의 영화▶ **라스트 콘서트**
 병원에 치료 차 갔던 피아니스트 리처드는 청순한 처녀 스틸라를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백혈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생명이었습니다. 그녀의 티없이 맑은 마음에 리처드는 그동안의 슬럼프에서 헤어 나오게 되고 그는 그녀를 위해 “스틸라를 위한 콘첼라”를 작곡합니다. 그 곡이 파리 교향악단에 의해 초연되던 날 그녀는 무대위의 리처드를 바라보며 숨을 거둡니다. 당시의 청순가련형은 왜 모두 백혈병에 걸려야 했는지요? 주제곡 후반에서 들리는 “always be with you. I love you richard!” 라는 그녀의 탁하지만 애절한 음성은 아직도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4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0월 30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이런 학위 받으셨습니까?

-런던 양무리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교장으로 계시는 school of Christ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이 학교는 동문이 화려합니다. 모세, 요셉, 다윗, 바울, 무디, 스펀전.... 입학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졸업은 각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 제한은 없구요, 허나 입학하려면 대학 졸업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BA (Born Again) :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입학을 하면 다음의 학위 과정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MA (Make Anew) : 새로워짐. 박사 학위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Ph D. (Praise Him Daily) :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삶을 살 줄 아는 과정

Th D. (Thank Him Daily) : 날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과정

D.D. (Doctor of Desert) : 광야 박사 학위.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고통은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극복할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인품따라 행하기▶
 다친 손으로 일 할 수는 있지만, 다친 마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0 (빌 4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359장	
기도 Pray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5:9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Peace Maker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55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0,11월 예배위원◆

일자	개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30	김순자	박하림		<현관> 김교섭 정덕수
6	김홍길	박혜련	박종화, 박숙영	
13	김종건	반혜련	서재오, 이수은	<본당> 노은숙 정희자
20	노은숙	방명아	이영성, 차현주	
27	박활영	백제성	정성수, 구현희	

◆10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30	이삭줍기주일 당회, 선교회
6	특별수요예배(9) (살롬, 익투스) 초청찬양
13	믿음의어머니기도회(15)
20	추수감사주일
27	대강절 시작 선교회 총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2시

- 다음주 수요일 "특별수요찬양예배" (예고)
<일시> 수요일(9일) 저녁 7:30분 교회당
*해마다 "살롬여성중창단"과 "익투스남성중창단" 초청하여 드리는 찬양예배를 금년에는 다음주 수요예배로 드립니다. 고품스런 예배당안을 감싸고 도는 화음에서 주님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품을 수 있습니다.
- 11월 셋째주일 "세례식"을 위한 문답
*13일(다음 주일) 예배 후 유아실에서 갖습니다.
*세례대상: 14세 이상, 꾸준히 교회출석 1년이상(타교회 포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교우께서는 신청하여 주십시오.
* "기초신앙반" 이수자, 혹은 참석교우는 세례문답이 면제됩니다.
- 청년부의 "인도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비용 모금 음식판매"
*서툰 솜씨로 다급하게 만들어 내는 손길에서 젊은이들의 순수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만든 음식을 잡수주시는 교우들에게서는 더 순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새벽기도회 <일시> 매주 금요일 새벽 5:55분
*NCEA를 앞둔 자녀의 부모님께서는 11월-12월 새벽기도회에서 자녀의 지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역 담당자들께서도 구역식구 자녀의 시험을 위해 함께 새벽기도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착한 시인들▶ 사 람 꽃

고형렬

복숭아 꽃빛이 너무 아름답기로서니
사람꽃 아이만큼은 아름답지 않다네
모란꽃이 그토록 아름답다고는 해도
사람꽃 처녀만큼은 아름답지가 못하네
모두 할아버지들이 되어서 바라보게,
저 사람꽃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못 나비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여도
잉어가 아름답다고 암만 쳐다보아도
아무런들 사람만큼은 되지 않는다네
사람만큼은 갖고 싶어지진 않는다네

졸업 한 초등학교를 30여년만에 찾아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공차는 아이들, 친구와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하는 아이들, 수돗가에서 입들이대고 물 마시는 아이... 모두 나의 모습이었었고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쁘게 교문 너머 어른들 세상은 걸려있는 피아노 줄처럼 팽팽한 긴장속에서 만나며 부딪쳐야 하는지요? 그때 친구들과의 해후는 다음으로 미루어 놓고 설레임으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